기말고사에서 몇 점을 받아야 하나요?

공식, 계산 예시, 그리고 같은 등급이 학교마다 다른 숫자인 이유.

작성자: Lubor Šimůnek · 게시일: October 16, 2026 · 교육
온라인 버전: https://appstoryo.com/ko/blog/what-grade-do-i-need-on-the-final-exam



기말고사에서 몇 점이 필요한지는 목표에서 현재 가중평균에 과목의 남은 비율을 곱한 값을 빼고, 기말 비중으로 나누면 나옵니다. 현재 78%이고 기말이 25%라면 과목 평균 80%에는 시험에서 86%가 필요합니다. School Planner: Student Agenda는 이 계산을 안드로이드에서 오프라인으로 처리합니다.

공시: *AppStoryo*는 *School Planner: Student Agenda*를 개발하는 스튜디오가 운영합니다. 아래 비교는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준을 쓰고 실제 대안들을 이름으로 밝힙니다.

기말고사에서 필요한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하나입니다. 원하는 과목 평균을 **t**, 기말 비중을 소수로 **w**, 나머지 전부에 대한 현재 가중평균을 **c**라고 하면, 필요한 점수는 **(t − c × (1 − w)) ÷ w**입니다. 목표 80%, 기말 비중 25%, 현재 평균 78%라면 (80 − 78 × 0.75) ÷ 0.25 = (80 − 58.5) ÷ 0.25 = 86%입니다.

같은 숫자에서 검산 두 개가 공짜로 나옵니다. 기말을 100% 받으면 과목 평균은 58.5 + 25 = 83.5%가 상한입니다. 0%면 하한은 58.5%입니다. 아직 닿을 수 있는 결과는 모두 이 두 값 사이에 있고, 그래서 90% 목표는 앉기도 전에 사라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틀리게 잡는 값은 **c**입니다. 점수들의 단순 평균이 아니라 항목별 가중평균이고, 각 항목을 지금까지 그 항목에서 받을 수 있었던 만점으로 나눕니다. 5점 쪽지시험에서 95%, 200점 중간고사에서 70%라면 평균은 82.5%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 설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School Planner: Student Agenda입니다.

같은 등급이 왜 학교마다 다른 숫자가 되나요?

척도를 정하는 주체가 학교이고,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템플대학교 요람은 열두 등급을 싣고 B는 3.00, B−는 2.67이며 그중 열한 등급이 이수로 인정되어 0.67의 D−까지 내려갑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학적과는 4.0 척도에 여덟 개 값만 공표합니다 — A, B+, B, C+, C, D+, D, F —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서는

B+가 3.5이고 템플의 3.33이 아닙니다.

IU 인디애나폴리스는 반대 방향으로 열세 개 값을 두며, 여전히 4.0점인 A+도 있습니다. 표준화 시험은 세 번째 유형을 더합니다. 칼리지보드의 AP 점수 척도는 전부 다섯 점뿐이고 3은 「자격 있음」을 뜻하며 B−부터 C까지 어디에나 대응합니다. 그러니 t에 넣을 기준값은 여러분의 강의계획서에 인쇄된 값이고, 90/80/70을 전제하는 계산기는 여러분 대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필요한 점수가 100퍼센트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목표는 산술적으로 닿을 수 없고, 정직한 수는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78%와 비중 25% 기말을 그대로 두고 90%를 노리면 공식은 (90 − 58.5) ÷ 0.25 = 126%를 돌려줍니다. 어떤 복습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용한 질문은 닿을 수 있는 등급 가운데 어느 것이 노력에 값하느냐이고, 그 판단은 58.5%와 83.5% 사이에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그만큼 흔합니다. 86%로 들어가고 기말 비중이 20%, 목표가 80%라면 필요한 것은 (80 − 68.8) ÷ 0.2 = 56%입니다. 이 위치의 학생은 이미 안전한 과목을 과하게 복습하면서 정말 경계에 선 과목은 손대지 않은 채 둡니다. 모든 과목에 이 숫자를 내보는 일이 시간을 어디에 둘지 알려줍니다.

School Planner: Student Agenda는 필요한 점수를 어떻게 뽑아내나요?

항목과 비중을 한 번 입력하면, 점수가 들어오는 대로 앱이 가중평균을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스토어 설명에는 가중평균, 시험과 숙제 같은 항목, 퍼센트, 점수, 등급과 GPA 또는 1~5 척도, 가정 시뮬레이터,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 B+에 닿으려면 몇 점이 필요한가」에 답하는 목표 등급 계산기가 적혀 있습니다. 척도를 직접 정의하므로 여덟 등급 학교와 열세 등급 학교가 모두 표현됩니다.

시험 주간에 중요한 점은 셋입니다. 무료이고 구독도 계정도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동작하며, 구글 플레이의 데이터 안전 섹션은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신고합니다. 내보내기도 됩니다. JSON 전체 백업, CSV 성적, 그리고 구글 캘린더와 애플 캘린더가 모두 읽는 RFC 5545 iCalendar 형식의 시간표 파일입니다. 홈 화면과 잠금 화면의 안드로이드 위젯은 앱을 열지 않고 다음 수업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는 2026년 9월 18일이고 분류는 교육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앱을 써야 하나요?

Gradekit의 스토어 설명 자체가 이 계산 전체가 떠맡는 일을 영어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What do I need to get on that next test?

학교가 온라인 성적부를 쓴다면 Gradekit

- 설명에는 앱이 대신 로그인해 주는 성적부가 스무 개 넘게 나열되고, PowerSchool, Infinite Campus, Skyward, Schoology가 포함됩니다 — 점수를 손으로 넣을 일이 없습니다.
- 평가 40,555건에 평균 4.71, 버전 4.6.40은 2026년 10월 3일 공개. 이 목록에서 가장 많이 평가되고 가장 최신인 선택지입니다.

같은 플래너를 컴퓨터에서도 써야 한다면 Power Planner

- 설명에는 선택 계정을 통한 여러 플랫폼 간 클라우드 동기화와 여러 학기에 걸친 자동 가중 GPA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전용 앱이 못 하는 단 하나입니다.
- 평가 1,728건에 평균 4.82, 버전 2609.30.219는 2026년 9월 30일자. 책상에서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시간표가 순환하고 계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School Planner: Student Agenda

- A/B 주, 1~4주 주기, 공휴일을 건너뛰는 Day 1부터 Day 8까지의 순환 — 범용 성적 계산기가 전혀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 직접 정의한 척도 위에서 돌아가는 목표 등급 계산기와 가정 시뮬레이터. 기기를 벗어나는 것이 없고 학교 네트워크에 로그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 현재는 안드로이드만, 무료이고 광고 없음: School Planner: Student Agenda 설치.

규모 감각을 위해: My Study Life(버전 9.0.5, 2026년 9월 17일)는 설명에서 187개국 1,000만 명이 넘는 학생을 내세우고, myHomework Student Planner는 4,310건 평가에서 4.53이지만 마지막 업데이트가 2025년 2월 5일입니다.

School Planner: Student Agenda가 맞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아이폰에서는 선택지조차 아닙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에만 나오고 연결할 iOS 버전이 없습니다. 성적이 이미 PowerSchool이나 Infinite Campus에 있다면 다시 입력하는 일은 Gradekit이 대신합니다. 같은 플래너를 노트북에서도 쓰고 싶다면 계정 없는 오프라인 앱은 설계가 맞지 않고, 그 자리에는 Power Planner가 더 어울립니다.

네 번째 한계는 여기 비교한 모든 앱이 함께 지닙니다. 「기말이 가장 낮은 시험을 대체한다」 같은 강의계획서 조항이나 최저 점수를 버리는 규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적은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목 비중을 손으로 고쳐 표현하는 것이고, 잊으면 나오는 숫자마다 자신 있게 틀립니다. 앱도 막 나온 터라 읽을 사용자 평이 아직 없습니다. 기능 목록과 내보내기로 판단하세요.

기말고사 점수에 대해 학생들은 또 무엇을 묻나요?

이수하려면 기말에서 몇 점이 필요한가요?

목표를 강의계획서의 이수 기준점으로 두고 같은 공식을 돌리세요. 78%, 비중 25% 기말, 기준점 60%라면 필요한 것은 (60 − 58.5) ÷ 0.25 = 6%입니다. 여기의 58.5%처럼 하한이 이미 기준점을 넘었다면 기말만으로 낙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말고사가 다른 시험보다 더 많이 반영되나요?

강의계획서가 말하는 만큼만입니다. 비중은 담당 교수가 고른 숫자로 보통 15%와 40% 사이이며 답을 크게 움직입니다. 78%로 들어갈 때 목표 80%는 비중 25% 기말에서 86%를 요구하지만 비중 40%라면 83%로 충분합니다.

현재 가중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각 항목을 그 항목에서 받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점수로 나눠 구하고, 각각에 비중을 곱한 뒤 더합니다. 비중 20% 숙제에서 90%, 비중 55% 시험에서 72%라면 18 + 39.6 = 57.6이고, 이미 채점된 75% 가운데 76.8%에 해당합니다.

강의계획서 없이 필요한 점수를 알려주는 앱이 있나요?

없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앱은 의심하세요. 계산에는 항목 비중과 학교 기준값이 필요하고 둘 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B는 템플에서 3.00점, B+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3.5점입니다. 앱은 넣어준 숫자를 되돌려 줄 뿐입니다.

퍼센트 점수와 GPA는 어떻게 다른가요?

퍼센트는 한 과목에서의 결과이고, GPA는 각 과목 등급을 점수로 바꿔 학점 수로 가중해 평균합니다. 템플의 척도는 A의 4.00부터 D−의 0.67까지입니다. 1학점 과목의 좋은 결과는 4학점 과목의 나쁜 결과보다 GPA를 훨씬 덜 움직입니다.

School Planner: Student Agenda는 아이폰에서 쓸 수 있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용으로 구글 플레이에만 나오므로 앱스토어 페이지도 없고 아이패드 버전도 없습니다. 아이폰에서 같은 목표 등급 계산을 원하면 Gradekit이나 Power Planner를 보세요. 둘 다 앱스토어에 있고 둘 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쓰려면 계정이나 인터넷이 필요한가요?

둘 다 필요 없습니다. 설계상 오프라인이고 가입도 없으니 모든 것을 막는 학교 네트워크에서도 시험 당일에 돌아갑니다. 구글 플레이 데이터 안전 섹션은 데이터를 수집하지도 공유하지도 않는다고 신고하며, 백업은 여러분이 직접 보관하는 JSON 파일입니다.

나중에 성적을 앱 밖으로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형식으로 — 한 학기를 맡기기 전에 어떤 플래너에도 걸어봐야 하는 시험입니다. 설명에는 JSON 전체 백업, CSV 성적 내보내기, 그리고 구글 캘린더와 애플 캘린더가 바로 가져오는 RFC 5545 캘린더 파일 시간표 내보내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계산은 얼마나 앞서 해야 하나요?

각 시험 약 일주일 전, 마지막 과제가 채점된 시점에,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가치는 비교에 있습니다. 56%가 필요한 과목과 86%가 필요한 과목은 아주 다른 저녁을 받아야 합니다. School Planner: Student Agenda가 입력을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인용 형식: Lubor Šimůnek (2026). 기말고사에서 몇 점을 받아야 하나요?. AppStoryo, lapnito.cz s.r.o..
https://appstoryo.com/ko/blog/what-grade-do-i-need-on-the-final-exam
© 2026 lapnito.cz s.r.o.